



‘전쟁’ 관련 책 ‘특수’ 노리고 속속 출간



전쟁은 국가간의 분쟁(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벌어지는)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 역시 석유자본으로 대변되는 이슬람 문화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의도 등 다양한 각도의 해석을 낳고 있다.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은 2001년 9월에 일어났던 9·11 뉴욕 테러 사건이 배면에 깔려 있다. 테러의 배후로는 ‘알 카에다’를 이끌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 지목됐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집중 공격했지만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을 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흐름과 연계하여 9·11 테러 사건 전후 우리 출판계에서는 이슬람문화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른바 이슬람 관련서들이 인기를 끈 것이다. 20여 권에 달하는 이슬람 관련 서적이 출간 러시를 이뤘다. 이 중에서 테러 사흘 전에 출간되어 화제가 되었던 《이슬람》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책으로 꼽힌다. 중동지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연구자 12명이 체험을 바탕으로 썼다. 서구의 언론매체에 의해 부정적으로 덧칠된 이슬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이슬람, 그들은 누구인가》와 방대한 이슬람 역사서인 《이슬람 1400년》 등도 곧이어 출간되어 특수를 누렸다.

이채로운 것은 테러국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슬람국가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으나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책들이 인기를 끌었다는 점이다.

미완의 성공으로 그친 이른바 미국의 ‘하나콘다’ 작전이 2002년 3월 끝난 후, 1년 여 만에 미국의 관심은 다시 이라크와 북한에게로 쏠렸다. 2002년 1월 국정연설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이란, 이라크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미국의 다음 목표가 북한이라는 분석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마당에 ‘전쟁’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재 출판계에는 ‘전쟁’ ‘미국’과 이를 넘어 ‘반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전쟁 자체의 사회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전쟁의 폐악성을 성토했던 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과 이슬람과의 분쟁을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한 《근본주의의 충돌》(미토)과 일련의 중동분쟁을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기 위한 진통과정이라고 분석한 《성전》(얼과알) 등도 9·11 테러 이후 변화하고 있는 ‘전쟁’을 매개로 세계 정세를 진단하는 책들이다.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지식의풍경)은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독·소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전투의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전쟁의 폐해를 말해준다. 또 《폭격의 역사》(한겨레신문사)는 민간인은 살상하지 않는다는 미명 아래 폭격으로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백인우월주의의 산물임을 주장한다.

반전을 주장하는 서적의 대표격으로 《전쟁에 반대한다》(이후)가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하워드 진의 저서로 미국정부가 그동안 벌인 전쟁을 짚어보고 미 정부의 비도덕성을 폭로하였다. 또 동일한 제목으로 반전운동가인 밀란 레이와 촘스키의 저서에서는 명분 없는 이라크 공격을 강행하려는 미국정부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 또 미국의 침략전쟁사인 《전쟁중독》(창해)과 《미국의 이라크 전쟁》(북막스)도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의 부당성을 되짚어보는 책들이다.

부시 대통령 관련 책들도 나오고 있다. 부시의 집권과정을 신랄하게 비난하여 미국에서 큰 파장을 몰고 왔던 《명청한 백인들》(나무외숲)과 부시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공격지향적 성격인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행복한 부시, 불행한 세계》(좋은책만들기)란 책도 눈길을 끈다.

1980년대 출판계는 거대담론이 이끌어갔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위 민주화가 되었던 1990년대, 출판계는 미시적 주제들에 천착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참여와 다양성의 시대로 대변되는 200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사회문제, 정치에 참여하려는 분위기를 타고 출판경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출판뿐 아니라 전쟁관련 완구가 날개돋힌 듯 팔리고 전쟁관련 홈페이지, 군사전문가가 인기를 끌고 있는 등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출판계 역시 발빠르게 ‘전쟁’이라는 이슈를 담아내는 것은 우리 출판계가 그만큼 정보축적력과 기동성을 확보했다는 뜻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의 문제다.

‘이슬람’ 관련서들의 경우, 역시 많은 기획서들이 속속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콘텐츠 질로 판가름났다는 사실을 출판계가 인식해야 한다. ■■

강경희기자